

강기정 시장, 군공항·도시철도·AI 등 허심탄회 의견나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시청 비즈 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핵심 현안인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 인공지능(AI)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강 시장은 먼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 미팅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산하에 ‘6자 협의 TF’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가 주도의 실질적 논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강 시장은 “군공항 이전 준비를 충분히 잘해왔다”며 “군공항 이전 논의에서 광주시의 핵심 요구는 대통령실 산하, 특히 정책실장 산하에 TF를 구성해달라는 광주시의 입장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를 국가가, 정부가, 대통령이 주도해 구성하게 된 점은 매우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 대해 “무안군에 대한 1조원 지원 약속은 이미 1년 전에 발표한 것으로, 광주시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항 소음문제에 대해 “실제 전투기를 무안공항에 띄워보자는 제안은 이전에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향후 국방부가 무안군의 동의를 받아서 공항공사와 협의하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반경과 소음 범위 등에 대한 검증은 이미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

군공항 신뢰회복 전력… 소음측정 국방부·무안군 등과 협의 추진

도시철도 공사지연·시민불편 사과… TF 구성해 안전·민원 등 해소



으며, 관련 자료도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정부의 TF 구성에 따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발맞춰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또 전남도 및 무안군과 지속적 협의와 신뢰 회복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진행상황과 관련, “공사가 앞만 달리고 있지만 당초 약속했던 도로 포장 완료 시기인 10월에서 12월로 두 달 연기된다”며 “특히 백운광장(4공구)과 운전저수

지(2공구) 구간에서 대형 암석 파쇄 작업 지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드리며 복공판 정비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관리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3급)를 시민안전실(2급)로 통합해 ‘2급 실 체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그전까지 시민안전실에 ‘안전민원공정 상황TF’를 신설해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시민 피해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진행 상황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 영역을 재개하고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또 광주가 ‘대한민국 AI(인공지능) 국가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 중심도시를 위한 ‘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과 ‘국가AI컴퓨팅센터’ 성공 유치를 ‘기업, 인재, 데이터’로 먹고사는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나아가길 계획이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AX 실증밸리 예타 면제’를 오는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라야만 기재부·과기부 등과 협의의 필요와 이윤추구에 따라 건설되는 반면, 광주는 공공형 AI데이터센터로 국가가 주도해 공공형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도일 기자



남구, 양림동서 ‘근대의상 체험 150 페스타’

거점 예술여행센터 2층에 대여소·포토존 마련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근대 역사문화 마을인 양림동에서 ‘근대의상 체험 150 페스타’를 개최한다. 남구는 26일 “근대의상 체험과 퍼스널 컬러 서비스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을 위해 양림동 거점 예술여행센터 2층에 근대의상 대여소와 포토존을 마련했다”면서 “방문객 150명을 대상으로 인생컷 촬영과 사진 인화, 앨범까지 무상 제공하는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타는 근대문화 유산의 보급인 양림동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남구는 최근 양림동 거점 예술여행센터 2층에 근대의상 대여소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체험

플랫폼을 구축했다.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근대의상과 사진을 인화하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페스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체험 참가자 150명에게 근대의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근대의상을 입고 촬영한 사진도 앨범으로 제작해 기념품으로 지원한다.

페스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양림동 거점 예술여행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yangnim_art_travel) 또는 네이버 블로그(art_travel_center), 담당자 이메일(art_travel_center@naver.com), 카카오톡 채널로 접수하면 된다.

/임채일 기자

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26일 월광교회, (사)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와 ‘물품공유센터 5호점’ 조성·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생활 속 공유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월광교회는 공간 무상 제공과 시설 개보수 ▲(사)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인력 지원 ▲서구청장은 공유 물품 확보·수리·회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등 민·

서구, 민·관 손잡고 물품공유센터 문연다

7월 중 개소 예정… 월광교회 공간·자원봉사센터 인력 지원 약속

관이 함께 물품공유센터를 조성해 7월 중에 개소할 계획이다.

물품공유센터는 캠핑·유아용품, 공구류, 장난감 등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보관이 어렵거나 고가의 생활용품을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마련

된 공간이다. 서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학교·단체에 속한 주민이면 누구나 대여 기간에 따라 물품 가액의 1~3% 수준의 대여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는 이보다 앞서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1호점) ▲동천동 행정복지센터(2호

점) ▲농성1동 서로이음센터(3호점) ▲서창동 상무역골드클래스 상가(4호점) 등 물품공유센터 4곳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물품공유센터는 많은 예산이 드는 공간 확보와 리모델링이 관건이나,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의미 있는 물과구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북구, ‘2025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다음달 4일까지 미용·뷰티·식품 등 생활소비재 기업 대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25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이하 개척단)은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북구가 지난 2023년 처음 마련한 사업으로 KOTRA 광주전남지원본부와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이번 개척단은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인해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11월 3일부터 4일간 말레이시아 현지로 파견될 예정이다.

올해 파견지가 말레이시아로 결정된 이유는 앞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국가인 것에 더해 북구 교역국 중 최근 2년간 수출 규모 2위를 차지할 만큼 교류가 활발한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북구는 다음 달 4일까지 이번 개척단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미용·뷰티·식품 등 생활소비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북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수출 준비 정도, 지원 필요성, 상품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10개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해외 바이어 매칭 ▲통번역 서비스 ▲현지 차량 임차료 ▲항공료(최대 70%) ▲마케팅 지원 등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북구는 기업 선정 이후 9월부터 현지 공급업체와 기업을 연결하여 대형유통망 입점을 촉진하고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라이브 커머스·릴스·숏폼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개척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말레이시아 파견 일정 중에는 수출상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실제 수출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통령은 “강 시장·김 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 대폭 완화, 세제 혜택, 숭배전망 설치,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깎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위협성을 감수하는 것으로 위험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발언이 끝난과 동시에 이날 포켓을 들고 참석한 시민에게 가장 먼저 발언권을 넘기

며 건의사항을 들었다.

포켓시민은 “송정지역주택조합인데 현재 자금이 부족해 파산경계에 이르고 있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문제이며 현재 특정건설사에 대한 민원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광주군공항 탄약고 인근 주민은 “탄약고로 인해 50년 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주변의 도로도 위험 도로가 돼 있다”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이 사법고시 폐지로 인해

로스쿨이 생겼지만 급수저만 다닐 수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부활을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법조인 양성 루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한다”며 “현재로서는 폐지, 공식의제로 논의하기도 쉽지 않은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평소의 고민을 말하기도 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광주 군전투기가 무안공항 인근에서 시험 비행을 실시해 실질적인 소음도를 측정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과 ‘호남의 맛을 살린 K푸드 육성’ ‘광주대구달빛내륙철도 특별 열차(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김대중

대통령 생가 하의도 다리 개설’ ‘공공 데이터 규제 완화’ ‘전통시장 제품 대기업 구매’ ‘청년일자리 확대’ 등이 건의됐다.

예정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역민의 발언을 모두 청취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공통의 문제를 놓고 집단 토론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어색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논의하면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 보고 싶었다”며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이야기 해보고 싶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시스

